

100% 깨끗한 환경, 100% 리사이클 - 100%의 사업가를 만나다

(주)루펜리 이희자 대표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2006 독일 국제발명품전시회' 은상·러시아 특별상, 2006 서울국제발명전시회 3관왕, 중소기업청 선정 '올해의 신지식인' 선정, 여성발명 우수사례발표회 특허청장상, 발명의 날 국무총리상 ... 2006년 한 해 (주)루펜리의 대표적인 수상실적이다. 음식물 처리기 '루펜'은 소비자의 주거공간을 세심하게 배려한 검증된 기술력과 디자인으로 승부한다. 음식물 처리기 제조업체에서 친환경 에너지 생산회사로의 진화를 준비하는 환경 CEO 이희자 대표를 만났다.

“주부 26년 경력이면 9단 실력 아닌가요?” 웃으며 말을 건네는 이희자 대표.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 그의 직업은 말 그대로 전업주부였다. 그렇지만 20년간 사업을 하던 남편이 IMF를 맞아 온 가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희자 대표의 머릿 속에 떠오른 것이 바로 ‘음식물 처리기’였다. 물론 루펜 이전에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는 존재했었다. 하지만 ‘무를 건조시킨 무말랭이는 썩지도, 냄새가 나지도 않는다’라는 주부 9단의 아이디어는 기존의 미생물 분해방식을 건조방식으로 차별화했다. 이러한 발상의 전환이 2007년 1,000억 매출을 바라보는 루펜의 시작이었다.

100% Fresh ENvironment = LOOFEN

아라비아 숫자 100을 뜻하는 ‘LOO’와 100% 깨끗한 환경, 100% 리사이클을 뜻하는 Fresh ENvironment 말의 합성어 루펜LOOFEN. 수많은 건설사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 루펜리 제품은 빌트인으로 장착되어 있다. “신규 영업이요? 건설사 사장님 앞으로 제품을 보내고 직접 사용해 보길 권했어요. 주부의 체험이 그대로 반영된 제품이니만큼 자신 있었고, 사업이나 영업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 속에 진심을 보인다면 어떤 일도 이룰 수 있으리라 믿었거든요.” 이어 새롭게 사업을 구상하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덧붙인다. “사업을 구상하시면 일단 시작하세요. 그리고 시작한 후엔 성공을 믿으세요. 자신의 성공을 믿는 마음이 사업의 시작입니다.”

우리나라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해마다 5조에서 7조원을 지출한다. 음식물 건조기를 국가에서 구입하여 국민에게 나눠주는 비용은 2조원.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지난 3월 <Korean Business Delegation to Saudi Arabia & Kuwait> 참여를 위해 아랍에 갔을 때를 회상한다. 우리나라와 차원이 달랐던 루펜에 대한 호응 때문이다. 국가에서 루펜을 일괄구입하여 전국민에게 나눠줄 의향을 비쳤던 것. 올해 아랍 5~6개국에 진출 예정이며 유럽과 미국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또한 루펜은 현재 일본, 대만, 스위스, 캐나다 등에 이미 진출해 있는 상태이다. 이희자 대표가 외국 진출을 위해 수많은 외국 바이어들과 교류하면서 얻은 것 중 하나는 ‘그 나라 언어를 잘 못하더라도 수준 높은 기술과 믿음이 있으면 통하더라’는 것.

오늘 루펜리의 성장 요인 중 하나로 이 대표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빼 놓을 수 없다. 공식적인 외국 행사에 진흥색 한복을 입고 나타나는가 하면 신제품 발표회에서는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한복패션쇼 등을 개최했다. 이 대표는 참석자와 제품을 발표하는 사람 모두 즐거운 ‘잔치’를 만드는 능력을 가졌다. 순전히 ‘일이 재미있어서’ 내놓은 아이디어가 행사 참석자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연출, 감독하는 것도 그의 일. 그는 여기서 CEO의 안목과 경영 철학을 중시한다. “아이디어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조금씩 쌓아 가야합니다.” 이는 필립스 사에서도 인정 받은 루펜의 디자인이 우연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증명한다.

마흔아홉의 성공과 가정

“어느 날 받은 딸 아이의 편지에 ‘나는 이 답에 커서 엄마 같은 사람이 될 거야’라고 적혀있었어요.”

‘성공’에 대한 물음에 이 대표는 봄 햇살처럼 해사하게 웃으며 대답한다.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기업인으로는 뭐니 뭐니해도 매출이죠. 기업인은 매출로 말한다고 생각해요.” 분위기를 바꿔 각오에 찬 대답으로 덧붙이는 이 대표의 모습은 기업인으로써도 이미 9단이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동지적 관계’라는 말처럼 사업을 시작할 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데는 30년 가까이 사업가로 이름을 알려온 남편과 든든한 두 아들의 후원이 컸다. 냄새나고 지저분한 이미지였던 음식물 처리기의 이미지를 새롭게 바꾸기 위해 디자인을 제안한 것도 큰아들의 공이다. 김치냉장고가 필수 주방 가구의 하나가 되었듯이 <루펜>도 집안 어디에 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세련됐다. 그것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식당 같은 영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음식물을 건조시키면 냄새와 연기가 없는 탄이 만들어져요. 이 건조물로 7~8시간 동안 에너지를 낼 수 있는 탄처럼 에너지화 하는 것을 연구 중입니다.” 루펜의 궁극적인 목적은 버릴 것이 없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모두 친환경 에너지로 만드는 것이다. 매출이 오를수록 환경이 좋아지는 기술을 가진 기업, 그리고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제품을 만드는 루펜리. 노란 햇살이 쏟아질 것 같은 봄의 한가운데서 직원에게 주는 작은 엽서가 붙어 있는 루펜리 입구를 나서며 ‘루펜(LOOFEN)’이 음식 잔여물의 100% 리사이클을 상징하는 고유 명사로 자리매김하고 루펜리가 ‘친환경 에너지를 만드는 기업’의 대명사가 되는 날을 기대해 본다.

주방을 숨 쉬게 하는 음식물 건조기, 루펜

위생적인 건조방식으로
세균·곰팡이 항균은 물론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루펜

세균과 곰팡이가 항균처리되어 가족의 건강을 지켜준다.

남은 음식물을 방치해 두었을 때	루펜으로 건조했을 때
일반세균 8억 개	일반세균 300개 이하로 감소
대장균 8억 개	대장균 2개 이하로 감소
황색 포도당균 35억 개	황색 포도당균 2개 이하로 감소

(조사기관 : 일본 사기현 약제사협회 시험보고)

쾌적한 삶, 깨끗한 가정의 필수품_ 가정용 루펜

LF-03사양

- 공간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내장, 외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처리방식	공기순환건조방식
냄새배출방식	강제 흡입 배출 방식(원적외선, 음이온 발생)
전원	220V/60Hz
소비전력	송풍 20W / 표준 90W / 급속 120W
처리량	6L
표준전기요금	월 3,000~3,500원 정도(단 누진세 적용 제외)
규격	360mm(W) x 250mm(D) x 438mm(H)
본체중량	8Kg

특징

- 악취를 강제로 흡입 → 배출 시스템 방식
- 물기, 냄새, 세균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가정 웰빙 제품
- 원적외선, 음이온 발생으로 대장균, 황색포도당균 등 일반세균 항균처리 및 냄새제거 기능
- 음식물 쓰레기 발생 즉시 투입만 하면 원터치로 간편하게 처리
- 깔끔하고 청결한 주방 분위기
- 발생 즉시 건조처리 되어 재활용 효과에 매우 뛰어남
- 한국표준협회 '옴스상품' 선정



LF-03Q사양

- 별도의 설치 없이 공간의 제약을 최소화한 편리성과 효율성

처리방식	열풍건조
냄새배출방식	화학적처리(처리기 내 소각)
전원	220V/60Hz
소비전력	최대 소비전력 : 680W, 평균 소비전력 : 450W
처리량	최대 2Kg(약 3L)/회
표준전기요금	400g 약 50원/회, 700g 약 85원/회
외형치수(길이 x 폭 x 높이)	265mm x 371mm x 505mm
본체중량	12Kg

특징

- 월 2~3회 배출로 번거로움 해소
- 건조된 음식물을 사료, 연료로 다시 재활용 가능
- 어떤 음식물이든 처리(단, 축산동물의 뼈 등은 제외)
- 별도의 설치가 필요 없으며 좁은 공간에도 깔끔하게 배치할 수 있는 구조
- 건조시키면 1/10로 양이 줄어듦
- 한국표준협회 '옴스상품' 선정



■ 더 편리하고 깨끗하게 _ 사업장용 루펜

식당, 레스토랑 등 요식업체 및 학교, 병원, 군부대 등 많은 양의 음식물 처리에 적합한 제품. 상부 도어를 열고 음식물을 투입하는 방식

■ 특징

- 세계 최초 건조방식(염분과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음식 문화에 적합)
- 어떤 음식물이든 처리(단, 축산동물의 뼈 등은 제외)
- 번거로움이 없음(최대 10분의 1로 양이 줄어 부피 절감)
- 편리한 사용(발생 즉시 투입만 하여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작동)
- 작은 크기, 탁월한 성능(어느 주방이나 어울리는 디자인과 성능)
- 건조 후 배출된 부산물은 보관 시 부패할 염려 없어 수거 및 재활용에 효과적



LF-25

형식	프리스탠딩	규격	770mm(W)×650mm(D)×820mm(H)
처리용량	최대 30Kg/회	처리방식	건조분해식
중량	150Kg		
정격전압	220V 60Hz	소비전력	최대사용 2.5Kw/Hr

LF-100

형식	프리스탠딩	규격	1150mm(W)×900mm(D)×1000mm(H)
처리용량	최대 100Kg/회	처리방식	건조분해식
중량	220Kg		
정격전압	220V 60Hz	소비전력	최대사용 7.0Kw/Hr

LF-50

형식	프리스탠딩	규격	900mm(W)×710mm(D)×905mm(H)
처리용량	최대 60Kg/회	처리방식	건조분해식
중량	180Kg		
정격전압	220V 60Hz	소비전력	최대사용 4.0Kw/Hr

LF-200

형식	프리스탠딩	규격	1300mm(W)×1000mm(D)×1100mm(H)
처리용량	최대 200Kg/회	처리방식	건조분해식
중량	260Kg		
정격전압	220V 60Hz	소비전력	최대사용 9.0Kw/Hr

Mini Interview

궁금하다! (주)루펜리 브레인

(주)루펜리 이용규 개발이사



Q 말고 계신 분야는

A 루펜 전 제품의 개발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Q 제품 구성을 간략히 알려주세요

A 업소용 사이즈가 5종이고 가정용이 세 가지입니다. 두 가지 방식은 비슷한데 외형과 크기에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 두 가지 제품을 더 출시할 계획입니다.

Q 루펜리와의 인연과 함께 일하게 된 계기

A 5년 정도 됐습니다. 버려진 음식물을 자원화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고 제품을 보급할수록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시장 전망도 밝고요, 지금은 제품 보급과 사업이익창출이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Q 기업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A 중소기업이 살 길은 제품개발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우선하는 게 제품을 좋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요즘 듭니다. 회화를 전공하신 사장님이 현재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사업성에 대한 믿음과 제품개발에 대한 열의의 결과에 다름 아닙니다.

Q 국내외 많은 판매량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생산과 A/S 대책은

A 삼성전자 디지털프라자에서 국내 판매를 대행하고 있고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 A/S를 철저히 보장합니다. '루펜 LF-03Q'의 경우 노비타와 지난 4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노비타 천안공장에서 생산 중입니다. 이같은 방향으로 루펜리는 보다 편리한 A/S를 제공하고 유통 채널까지 확대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혀갈 것입니다.

Q 일에 있어서의 보람과 포부는

A 안 되는 게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생각한 대로 제품이 나왔을 때 가장 보람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올해 목표는 늘 그래왔듯이 현재 개발 중인 것을 완벽하게 완성하고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쓸 수 있도록 쉽 없이 개발하는 것입니다.